

향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행복과 자유 누리며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 위해 살아간다. 행복은 느끼는 것이요, 누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에 따라 눈높이에 따라 행복의 현주소가 바뀔 수 있다. 색깔에 따라 무게와 느낌에 따라 행복과 불행은 번갈아가며 생각의 윤회를 거듭하기 때문이다.

행복은 눈, 귀, 코, 입, 몸, 뜻의 열린 문으로 들어 왔다가 눈, 귀, 코, 입, 몸, 뜻의 닫힌 문 일 때 불행으로 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행복과 불행은 둘이 아닌 하나이다. 열고 닫힘에 따라 빛이 어둠이 되고 어둠이 빛이 되는 이치이다.

세상의 절반은 빛이요 절반은 어둠이다. 절반은 행복하고 절반은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다.

희(喜)·노(怒)·애(哀)·락(樂)은 고정된 모양의 틀이 아니라 주변 환경에 따라 변화하는 안개와 같고 물의 흐름과 같다. 영원히 행복한 사람을 만날 수 없듯 영원히 불행한 사람도 찾을 수 없는 것이다. 세상이 낮과 밤으로 이루어져 있듯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있고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종교 신앙 쪽으로 기우는 것도 괴로움을 여의고 즐거움을 찾기 위함이다. 불행을 멀리하고 행복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다. 영원한 행복, 영원한 자유는 산자들이 누구나 누리고저 하는 꿈의 유토피아(Utopia)이다.

영국의 사상가 토머스 모어가 만들어낸 말이지만 '어디에도 없는 장소',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이상적인 사회'를 그리워하며 예로부터 천국(天國)과 극락세계를 만들어 왔던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팍팍하고 고단하다. 허무하고 무상(無常)하다. 질긴 삶도 지나고 보면 풀끝에 맺힌 이슬이요 허무의 그림자로 막을 내리는 몇 마당짜리 연극 같다. 모인 관중이 막 내리면 흩어져 빈 마당이 되듯 재산, 명예 흩어지고 사라지면 누구나 적막강산의 홀수가 된다.

어지간히 다투며 싸우며 몸부림치며 모으고 챙기고 쌓아온 재산과 명예가 해질녘 되돌아보면 마른모래를 쥐고 있던 빈주먹의 싸한 아픔뿐이다.

삭신이 세월의 무게에 녹이 슬고 기능의 동작이 더뎌가며 죽음의 문턱에 이르게 되면 삶이란 검불떼기 같은 가벼움의 눈물뿐이다. 살면 얼마를 살까싶어 나누기, 비우기, 덜어내기. 몸과 마음으로 이별을 연습하고 있지만 가슴 싸한 추억은 몇 방울의 눈물방울로 남는다.

사람이 앓는 모든 병은 집착에서 비롯된다. 늙어서도 철이 덜 들어 명예와 재산 쪽에 기웃거린다면 그는 얼간이요 머저리 등신이다. 분주한 몸짓도 서서히 거둬들여 잔잔하게 개운하게 마무리의 마침표를 준비해야 한다.

불교 매체를 보면 스님은 복 짓는 설법이요 사찰알림은 한 가지 소원은 이루어진다는 광고로 도배돼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열려있으나 사찰과 스님들은 막혀있는 행위로 부끄러움을 더해가고 있는 현실이다.

물론, 바른 불교 바른 신앙의 열린 사찰과 열린 스님의 설법이 없지 않으나 사찰경제를 앞세워 오늘날의 불교계는 망가지고 있는 느낌이다.

수행자답게, 스님답게 말과 행동이 맑고 밝아야한다. 방편설(方便設)을 앞세워 목탁불교로 신앙을 돈으로 거래할 일은 아닌 것이다. 설법 내용은 경전 중심으로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알려주어야 하고 설법자 스스로 깨달음을 향한 부끄러움이 없는 당당한 수행자가 되어야 한다.

진솔하게 순수하게 당당하게 넉넉하게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말하고 실천하는 행동인이 되어야 한다. 검소하고 가난하게, 그 가난함이 부끄럽지 않고 떳떳하게 하루하루를 아름답게 마무리하며 살 일이다.

인생이란 흔들리면서 헐떡이면서 서서히 철이 들다가 막을 내리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일반론적인 것에서 수행자는 일찍 깨어 있어야한다. 허울의 옷을 훌훌 벗고 끌어당김의 머묾에서 자유로워야 수행자이다. 더욱이 독신수행승이라면 비우기 나누기 덜어내기의 참 주인공이 되어야한다. 텅 빈 충만의 행복과 자유를 누리기 위해.

모든 병은 집착에서 비롯된다

텅 빈 충만 주는 행복 누리길

화두에는 분별이 없다



지안 스님의 〈禪話의 향기〉

조계종 고시위원장

선가의 공안(公案)을 모두 합쳐 1700공안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하게 된 것은 〈경덕전등록〉에 수록된 선사들의 공안을 모두 합쳐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후대에 와서 이들 공안을 선별하여 중요한 공안을 활구(活句)라 하여 간추려 내기도 하였다. 설두중현의 〈송고백칙〉도 1700 공안 가운데서 100개를 간추려 낸 것이다. 간혹 공안에도 사구(死句)가 있다고 한다. 활구니 사구니 하는 말은 공안이 지닌 생명력이 살아있는 것을 살아있는 말(活句)이라 하고 공안의 생명력이 없는 것을 죽은 말(死句)이라 하였다.

간화선 공부에 있어서 선수행자가 가장 많이 참구해온 대표적인 공안을 무자(無字) 화두라 한다. 물론 '이 멋고(是甚)'라는 화두도 있지만 무자화두의 10가지 병을 설해온 예를 보더라도 공안의 대표라 할 수 있는 것이 역시 무자라 할 수 있다.

이 무자 화두는 조주종심(趙州從諗:788~897) 선사에 의해서 제안된 화두다. 원래는 구자무불성화(狗子無佛性話)인데 줄여서 그냥 무자화두라 한다.

〈조주록〉에 어떤 학인이 찾아와 조주스님에게 질문을 하는 이런 대화의 장면이 나온다.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다." "위로는 부처님으로부터 아래로는 곤충에 이르기까지 모두 불성이 있는데 개는 어째서 없습니까?" "그것은 업식성이 있기 때문이다."

질문한 학인은 〈열반경〉 등에 설해져 있는 '일체 중생은 불성이 있다.(一切衆生 悉有佛性)'는 경전의 말을 근거로 중생은 모두 불성이 있다 했는데 왜 없다고 하느냐? 개도 중생에 속하지 않느냐는 취지로 물은 것이다. 경전의 말을 부정하는 것인가? 여기서 화두의 본질을 알아야 한다. 말이 가지고 있는 지적인 아름아리를 따라가면 이는 죽은 말이 된다. '없다(無)' 한 것은 경전의 말을 활구로 만드는 수단이다. '있다' '없다' 하는 양단(兩端)의 어느 한쪽을 결정해 주는 말이 아닌 것이다. 〈조주록〉에는 또 이렇게 대답한 말도 있다.

"개도 불성이 있습니까?" "집집마다 그 집 문 앞에는 장안으로 통하는 길이 있다."

그런가 하면 유관(惟寬) 선사는 똑같은 질문에 '있다'고 대답했다. 〈경덕전등록〉 권7 '유관선사전'에 나오는 대화는 이렇다.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있다." "스님에게도 있습니까?" "나는 없다." "일체중생이 모두 불성이 있는데 어째서 스님만 없습니까?" "나는 일제중생이 아니다." "중생이 아니면 부처입니까?" "부처도 아니다." "그렇다면 마침내 무슨 물건입니까?" "이 또한 물건도 아니다."

"보거나 생각할 수 있습니까?" "생각으로 미치지 못하고 말로 얻을 수 없으므로 불가사의라고 한다."

글자가 지닌 유·무의 상대적인 의미에 화두가 있는 것이 아니고 '무'라 대답하고 '유'라 대답한 선사의 알 수 없는 의중이 화두가 되는 것이다. 화두에는 분별이 없다.

〈무문관(無門關)〉 1칙에는 무자(無字)에 대하여 이렇게 말해 놓았다.

"온몸으로 의심덩어리를 일으켜 이 '무'자를 참구하여 밤낮으로 들고 있되 허무라고 이해하지 말며, 유·무의 두 견해로 분별하지 말고…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야(부처다, 조사다 하는 관념에 얽매이지 말고 벗어나야) 이 무자의 관문을 뚫고 생사의 굴레를 벗어나 대자유를 얻을 수 있다."

조주의 무자는 이렇게 모든 공안의 표본이 되었다. 중국에서 선법이 번창하게 된 데에는 많은 선사들의 업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중 선의 보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선사를 두 사람만 고른다면 조주 선사와 임제 선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조주와 임제는 같은 시대를 살았다. 모두 당 말기 9세기초반에서 후반까지 활약하였다. 다만 조주는 120세의 생애를 살아 장수를 누렸다.

임제의 출생연대는 알려지지 않고 열반에 든 해가 867년으로 나와 있다. 두 사람은 또한 산동성(山東省) 남화(南華) 출신으로 동향(同鄕)이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기질은 달랐다. 후대의 사람들이 임제의 선풍을 남성적인 북방인 기질이라 평했고 조주를 온화한 남방인의 기질에 여성적이라 말하기도 했다. 섬세하고 언설적인 기지가 넘친 조주에 비해 임제는 행동적이고 거칠고 우직한 면을 보여 '산채로 파묻는다'는 활매(活埋)의 말을 남기기도 하였다.

타인이 즐거워야 나도 즐겁다



시인 도정 스님이 풀어쓴 〈대장부론〉 시즌2

⑥ 해탈 공덕을 위한 자세

智人若得解脫知利他樂歡喜氣味者。必當還來利益眾生。畏於生死為自利益求於解脫以為極樂者。不如菩薩受陰身時歡喜快樂為利他故。若自一已受逼迫苦者乃可入於涅槃。一切眾生受逼迫苦。云何捨於眾生入於涅槃° 見自己苦者入於涅槃。悲者見一切眾生苦皆住己心。云何捨於眾生入於涅槃。若能為他作樂歡喜æ 是涅槃。若不如是æ 是生死。於眾生有平等悲者為他作樂歡喜æ 是涅槃。佛所讚說。若解脫如利益一人歡喜樂者為智者所愛。若與他重樂不計功者æ 是解脫。悲者為他作樂不望果報。若能如是æ 是解脫。若不如是æ 是生死。若為己求樂者æ 是苦也。捨於己樂為他求樂æ 是涅槃。世間眾生以破苦故名為解脫。修悲者能破他苦æ 是勝解脫也。破他苦者二俱得樂。何有智者捨二解脫取一解脫。世間人言。有智者得於解脫。菩薩作是思惟。我不信是語。何有智人捨救他樂取於解脫。自己得樂能與他作樂。三有中樂勝解脫樂。菩薩為眾生受苦。勝於他人為己得解脫樂。

번역 | 지혜로운 사람이 만약 해탈을 얻으면 이타행의 즐거움과 환희의 기미를 알고 반드시 되돌아와 중생을 이익케 하나니, 생사를 두려워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해탈을 구함으로써 극락 삼는 것은 보살이 오음(五陰)의 몸을 받았을 때 즐겁고 기뻐하며 이타행을 하는 것만 못합니다. 만약 자기 한 몸의 핍박과 괴로움 때문이라면 열반에 들어가겠지만, 일체 중생이 핍박과 괴로움을 받는데 어찌 중생을 버리고 열반에 들어가겠습니까. 자기 괴로움만 보면 열반에 들어가겠지만 자비로운 이는 일체 중생의 괴로움이 모두 자기 마음에 머물러 있음을 보는데 어찌 중생을 버리고 열반에 들겠습니까. 만약 타인을 즐겁고 기쁘게 할 수 있다면 이것이 열반이거니와 만약 그러지 못하면 생사(生死)입니다. 중생을 향해 평등과 자비가 있고, 타인을 즐겁고 기쁘게 하는 게 곧 열반입니다. 부처님께서 찬탄하신바 만약 해탈하여 한 사람이라도 이익케 하고 기쁘고 즐겁게 한다면 지혜로운 이가 사랑한다고 하셨고, 만약 타인을 거듭 즐겁게 하되 계산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바로 열반이라 하셨습니다. 자비를 닦는 이는 능히 타인의 고통을 파하기에 곧 수승한 해탈이 됩니다. 타인의 고통을 파하면 두 가지 즐거움을 얻는데, 어찌 지혜로운 이가 두 가지 해탈을 버리고 하나의 해탈만 취하겠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말합니다. 지혜가 있어야 해탈을 얻고, 보살도 이런 생각을 짓는다고요. 나는 이 말을 믿지 않습니다. 어찌 지혜로운 사람이 타인 구제를 버리고 해탈의 즐거움을 취하겠습니까. 자신이 즐거우려면 더불어 타인을 즐겁게 해야 합니다. 삼계(三界) 가운데 즐거움은 승해탈락(勝解脫樂)이니, 보살은 중생을 위해 고통을 받거니와 타인이 자신을 위해 해탈을 얻는 것보다 수승합니다.

해설 | 본문을 읽다보니 언젠가 내게 해탈하였느냐 물었던 사람이 생각난다. 집착을 다 끊지는 못했다고 말을 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틀린 답이었다. 해탈은 내가 세상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기보다는 타인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었다. 해탈은 내가 평안한 삶이 아니라 타인을 즐겁고 평안하도록 만드는 삶이었다. 지혜란 것도 그러하였다. 사람들은 보통 내가 평안하면 세상이 평안하다고 여긴다. 한편, 내가 부처가 되면 세상에 부처 아닌 것 없다고 여기기도 하였는데, 이제 보니 세상이 부처님 세상이기에 내가 부처가 되는 것이었다.



불교의식 수강생 모집

단기속성 3개월과정 (52기)

본 대학에서는 일상적으로 상용화되고 있는 불교의식 교육을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1. 교육안내
- 개강일시 : **2017년 9월 7일 (목요일) 오후 3시** (목탁 지참)
- 교육시간 : 매주 월요일, 목요일 오후 3시 ~ 5시
- 출 강 반 : 서울 본 대학 (위치 : 서울 조계사 근처)
- 통 신 반 : 지방 거주자를 위해 통신교육을 실시함 (교재, 교육자료, 녹음CD 우송)

2. 교육내용
① 송 주 편 (도량석, 조석종성 등)
② 예 경 편 (상단예불, 조석예불, 각단예불, 향수해례, 사성례, 신중단 등)
③ 헌 공 편 (삼보통청, 중단퇴공, 관음, 지장, 신중청, 각종 불공의식 등)
④ 재의식편 (천도재, 49재, 시다림, 기제사, 명절제사 등)
⑤ 시 식 편 (관음시식, 화엄시식, 상용영반, 구병시식, 방생의식 등)

3. 신청방법 : 전화 또는 방문 접수 (우편, 팩스 접수 가능)
- 사찰 및 포교원에서 실제로 상용화되고 있는 의식방법을 집중 지도함
- 필요에 따라 일부 범음범패를 병용해서 의식 집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함

☎ 02)733-1959 720-1836

깨달음의 법(法) · 전법하는 사(師)

한국불교법사대학.대학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3 (견지동, 한선빌딩 3층)

http://pubsa.buddhism.org FAX : 02)737-5305